

천국의 이정표 (베드로후서 1장 5~11) 성산 남 옥 진 목사

사도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공관복음서에서 서둘러 대는 사람으로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 모른다.' 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사도행전에서 성령강림 후 한번 외침에 3,000이 회개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2번째 편지에서 그 분의 높은 영적인 내용을 '- 안에'로 8단계로 표현해 놓은 곳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

요즘, 대학입학 문은 여러 차례 열려 있다. 1차, 2차, 수시 등등 전문 분야 까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한 번 뿐이다. 그러므로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라고 했다. '들어감' 단어는 에-소도스(εἰσοδος)는 출애굽의 「출」인 엑소도스 [ἐξοδος] 와 대칭되는 입(入)인 '들어가다'인 즉, 「가나안」 진입을 뜻함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이 끝인 지점이다. 왜냐하면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은..... 하는 '에'는 회랍어 엔(ἐν)은 영이 in 이다. 그러면 믿음 '안에' 덕을, 그 덕 '안에' 지식을, 그 지식 '안에' 절제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랑 「아가펜-ἀγάπη」을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여정 이다.

- ① 믿음에: 피스테-(πίστει) 진동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용서와 증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다. '강한 확신' '기독교인의 삶의 근거'
- ② 덕을 : 알레테엔(ἀρετήν)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나와 예수가 뒤바뀌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덕이다. 즉 '신적 성품'을 말한다. '도덕적 능력' '도덕적 활력' '영혼의 힘'
- ③ 지식을: 그노-센-(γνώσει) '이해력' '통찰력', 현실적인 부분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도 안 통하니, 양심은 물론 교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은혜, 은혜를 하나.....
- ④ 절제에: 엔크라테-안(ἐγκράτεια) 갈 5:23 와 같이 '분수대로 사는 것' 인데, 힘의 자제, 극기를 말한다.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듯, 토기장이가 흙을 다루듯 자기가 자신을 잘 다루는 것이 절제이다. '자기 분수에 맞게' 즉, 지나친 욕심, 탐심, 극기감정 등등...
- ⑤ 인내를: 휘포모네엔-(ὑπομονήν) '밑에서 견디어 내는 일' '지구력' 이다. 즉 시험, 환난, 핍박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견디어 내는 것이다.
- ⑥ 경건을: 유세베-안 (εὐσεβείαν) (종개+서다,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잘 걷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잘 생활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가증불충속됨이 없는 바른 신앙생활이다.
- ⑦ 형제사랑을: 필라델피아(φιλαδέλφια) '형제사랑 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정감이 넘치고 실제로 인정 있는 사람이자, 인색하고, 존중하고, 잘 따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 ⑧ 사랑을: 아가페-Λ-(ἀγάπην)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의 정점'(고린도전서 13장 13)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급히 서둘러라, 자발적으로 노력하라

- 사랑은**
- 1) 아무 계약 없이 주는 것
 - 2) 의심 없이 신뢰 하는 것
 - 3) 무제한용서 하는 것
 - 4) 강제 없이 복종 하는 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εἰσοδος) - 아-메엔- 다만 박물관에 임금님 술잔이 금으로 만든 것이 99개가 있다. 큰 것부터 차례로 쌓으면 한 개의 잔이 되고 펼치면 99개다.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사랑을, 형제사랑 안에 하나님사랑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담고 한 사람의 인격이면서, 여러 방면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필요한 곳에 급히 서둘러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천국의 행로이다.

